

오늘 밤은 참 감격스럽습니다.

한국의 장마비 같은 폭우를 뚫고 네 분의 목사님들이 나비학교에 조인하셨습니다. 한 분은 도저히 올 수 없는 형편이라 못 오셔서 다섯 목사님, 여섯 나비학교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. 왜 예정이냐면 로렉스 목사님이 교과서도 새롭게 편집하고 있는 중이고 하늘색, 노란색, 하얀색, 빨간색, 오렌지색 교복도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.

산티아고에 예쁜 색깔의 나비들이 더 많이 날게 되고 교회에서 아이티어 성경을 함께 읽는 나비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에 함께 기뻐하시며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.

오늘 밤은 비도 많이 오고...쉽게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. 하나님도 저희처럼 흐뭇하실거

같습니다. 

동역!


감사합니다

